

<HEREN> CLASSIC SERIES 2

HEREN

Art

THE ART FOUNDATION

미술 전문가들이 꿈은 젊은 아티스트 10인

호텔에 걸린 ART

독특한 개성의 세계적인 아트페어 2



한국의 단색화, 뉴욕에 꽃피다

단색화법의 대가 하종현이 미국 갤러리 블럼앤포(Blum&Poe)에서 첫 전시를 연다. 20세기 초 국내의 가장 중요하고도 성공적이었던 미술운동 중 하나인 단색화법은, 아시안 아트의 초석이 된 장르이기도 하다. 하종현은 1970년대 초기 시절부터 캔버스의 특성을 이용해, 두꺼운 오일 물감을 팔레트 나이프로 밀어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다. 특히 인위적인 것은 최소화하고 중력 같은 자연스러운 힘과 캔버스와 페인트의 물성을 활용한 화법은 명상의 순간을 선사하기도. 전시는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다. [web www.blumandpoe.com](http://www.blumandpoe.com)

4

Conjunction 79-11, 1979

Oil on canvas

62 7/8 x 47 3/16 inches

Courtesy of the artist and Blum & Poe, Los Angeles

